

시간의 무용함을 견디는 이야기의 힘

《목수의 집》 등 두권의 소설 펴낸 이청준씨

이청준씨의 새 작품들은 시간에 대해, 소설쓰기에 대해, 이야기에 대해 다룬다. 억압하는 체제에 대한 저항에서 자유로운 혼으로, 그의 작품세계는 계속 이어진다. 삶의 가혹한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소설쓰기를 통해 그는 자기구제를, 혹은 그 구제를 넘어선 자유를 말한다.

2000년 1월 20일, 소설가 이청준씨(61)의 출간목록에는 두 권의 책이 덧붙여졌다. 8년만의 소설 집 《목수의 집》과 신작소설 《인문주의자 무소작씨의 종생기》(열림원)가 한꺼번에 출간됐기 때문이다. 1965년 단편 〈퇴원〉으로 《사상계》 신인 문학상에 당선된 이래, 졸업아 35년간에 걸친 기나긴 '소설질'의 현재를 말해주는 작품들이다.

이 책들 뒤에 실린 총 28권 예정의 〈이청준 문학전집〉 광고문에 출판사가 붙여놓은 “작가가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총 권수는 추가변동될 것입니다”라는 문장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평론가 이광호의 고백처럼 이 목록 앞에서 “이청준 문학에 대해 새로운 비평을 첨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 추가변동될 전집 권수의 막막함이랄 수 있고, ‘소설질’이 여전히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35년의 막막함일 수 있다.

시간을 견디는 삶의 진면목

이청준씨는 새 소설집 〈작가의 말〉에서 지난 10년간의 소설쓰기가 “시간의 눈부신 생산성을 좇기보다는 거꾸로 그 속도를 지우고 시간 자체를 지워서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 너머 휩쓸림 없는 삶의 진면목을 궁구해보고 싶은 소망을 간절히 혹은 허망스럽게 뒤쫓고 있었던 듯”했다고 말했다.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삶의 진면목이란 과연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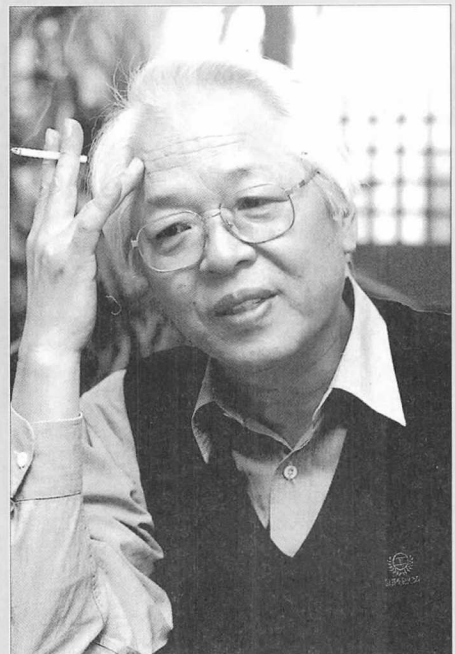
엇일까? 21세기에 대해, 혹은 환갑을 넘어선 자신의 문학에 대해 이청준씨는 이렇게 말한다.

“내 나이 정도면 21세기가 됐다고 해서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해도 시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삶은 더욱 확대되겠죠. 문제는 문학이 그 속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 다시 말해 노예가 될 것이냐 문학의 겹을 풍부하게 할 것이냐는 양자택일의 문제겠지요. 하지만 속도가, 정보의 양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문학의 몫은 따로 있습니다.”

이쯤이면 ‘시간에 견딘다’는 표현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확실히 이번 소설집에 실린 중편 〈날개의 집〉은 ‘시간에 견디기’를 다룬 소설이다. 주인공 세민은 4·19도 5·16도 낯설 만큼 시간에서 소외된 채 그림 그리기에 몰두해 왔다. 21세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시간을 마냥 탕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 작가가 세계의 정점, 창작의 정점에 이르면 이룰수록 그 정점은 그에게서 더 멀어지게 되죠. 그 과정이 없다면 타성과 상투성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예술가는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시간을 탕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이란 그 과정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절망 속에서 그린 세민의 그림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가의 시간과 세속의 시간이 서로



작가에게 소설쓰기는 무엇인가? 이청준씨에게 소설쓰기는 시간을 견디는 지난한 과정이다. 하지만 최근 펴낸 두 권의 소설은 그 과정에 구원이 담겼음을 말하고 있다.

다르게 흐른다는 시각은 같이 펴낸 《인문주의자 무소작씨의 종생기》에서도 되풀이된다. 이 소설은 꽃씨를 뿌리는 할머니, 어둠 속에서 서둘러 앞서간 사람을 뒤쫓아가는 사람 등 이청준 문학의 기본향으로 축조됐다. 낯선 것을 찾아 주인공 무소작씨가 보낸 한 평생은 결국 그의 이야기 들은 마을 사람들의 “그도 우리 사는 것과 하나 다르지 않아”라는 평가에 직면한다. 결국 예술가 무소작씨의 시간은 파탄에 이른 것일까?

“무소작씨는 이야기 꽃씨 하나를 자기의 무용한 삶에 품은 뒤, 평생을 헤매면서 여기저기에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짐작하지만 앓는다면, 무용한 낭비는 근원적인 것을 일깨워줍니다. 누구든 헤매지 않으면 찾을 수 없죠. 비단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주석을 덧붙여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고향 인근 마량포구까지 갔을 때의 일이다. 그 곳에 사는 초등학교 동기는 생은 상심한 이청준씨에게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다. 밤길을 걷는 동안, 그 이야기는 가슴 속에서 빛을 발했다. 가슴 속에 전해진 가냘픈 이야기 꽃씨 하나가 무용한 시간을

견더 마침내 꽃을 피우는 그 힘은 어디서 비롯하는가?

“삶에서 구원이란 죽은 뒤, 하느님이 심판할 때의 일이겠죠. 하지만 문학에, 소설에 이르면 구원은 그 지난한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쓸모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에게 꽃을 전해주고 피우는 일, 이를 두고 이청준씨는 소설쓰기라고,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삶의 진면목이라 말한다.

“예술가가 아니라 삶에 대한 애기다”

일반적으로 이청준씨의 소설을 관념소설, 의식소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후기 이청준이라고 부를 만한 몇몇 작품, 예컨대 문학평론가 성민엽이 말한 “모순을 껴안으면서 그 모순을 넘어서는 자유인” 탐구는 낯설 수도 있다. 확실히 <서편제>로 대표되는, 1978년 <남도사람> 이후 ‘장인’에 대한 소설적 탐색은 이청준 문학의 새로운 전환점처럼 보인다. 이는 이번 두 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앞에서 말한 <날개의 집>은 물론 <목수의 집> <시인의 시간> 등이 이 문제에 걸쳐 있다. 억압적 체계라는 부정성에서 자유로운 혼이라는 긍정성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목수의 집>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목수라는 직업이 참 끌립니다. 그에게 자신의 작업과 삶은 서로 일치하죠. 소설가는 그게 힘들죠. 하지만 소설과 삶이 서로 일치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술가·장인 얘기를 썼지만 바로 삶에 대한 얘기죠. 다시 말해 소설은 삶입니다.”

한 대담에서 이청준씨는 “행복한 시대에서는 새로운 문학의 틀이 만들어지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생전에 그의 노모가 “세상이 날로 좋아져 죽기 싫다”고 말한 것처럼 ‘행복한 시대’는 지금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는 “솔직히 앞으로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

는가”고 조심스레 말한다. ‘행복하면서 동시에 힘든 시대’는 또다른 단편 <시인의 시간>의 주제이기도 하다. 씌어지지 않는 시를 팽개치고 주식투자에 뛰어들어 시인은 현실에서도 패배한다. 결국 시인은 더이상 시도 쓰지 못하고 주식도 사지 못한다. 이 모호한 결론은 60, 70년대와는 또 다른 벽에 직면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마도 우리만큼 변화 많은 삶을 산 세대는 없을 겁니다. 농경시대에서 정보시대까지 지내왔죠. 문학의 위기관 말이 떠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문학은 아주 투명하고 자유로운 매체입니다. 그 자유를 통해 인간의 원초적인 속성에 접근하죠. 물론 <시인의 시간>에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았지만, 진정한 작가의 진정한 작품이라면 독자의 수가 아무리 줄어든다고 해도 삶의 가치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속과 현대사에 대한 장편 준비중

이청준씨는 현재 새로운 장편을 계획중이다. 책상 위에 언뜻 <한국무속사상연구> <집 없는 무당> 등의 책이 보인다. 누구나 짐작하겠지만, 우리의 무속과 관계 있는 듯하다.

“작년부터 장편 하나를 쓸 계획이었습니다. 대충 골격도 있고 자료도 모았는데, 생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히 무당 얘기는 아니고, 서양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사뭇 다르죠. 서양에서는 죽으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원귀가 돼 가족을 해코지합니다. 그래서 한을 풀어주기 위해 무당이 나오죠. 그 얘기와 지난 시대의 정치사를 연관시킬까 하는 중입니다.”

오컨대 문학적 해원작업인 셈이다. 이 작업은 “내게 1900년대와 새 2000년대의 경계 따위는 없어야 할는지 모르겠다”는 그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해 환갑을 지나면서 새로운 한걸음의 삶을 얻게 됐지만, 이청준씨의 문학작 시간은 계속 진행중이다. 이청준씨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난 평생 소설만 써온 사람입니다. 지금 와서 소설에 매달리지 않으면 어찌겠습니까? 나를 위안해 주는 게 바로 소설쓰기입니다. 나를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일이 바로 소설쓰기죠.”

2000년 벽두에 나온 이 책들이 단지 전집권수에 두 권을 덧붙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로써 알 수 있다. 역시 이청준 문학의 그 막막함은 현재형으로 계속된다.

- 김연수 기자

<목수의 집>
열림원/A5신/292면/7800원
<인문주의자 무소작씨의 종생기>
열림원/A5신/158면/7000원

